



안달루스에서 만난 동서고전문학



이종화 | 명지대

I. 서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상호교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며 인류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의 동서 문화교류는 이 지역이 인류문화의 중심지였었던 점에 비추어 세계문화사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동서 문화교류의 루트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와 아랍을 거쳐 유럽으로 전달되는 길로 지중해를 끼고 동부 지역으로 이어져 유럽에 도달하는 길과 북아프리카를 거쳐 안달루스로 이어지는 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랍에서 북아프리카를 거쳐 바로 안달루스로 이어지는 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서 문화교류, 특히 고전문학의 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양의 인도에서 탄생한 『부처설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안달루스로 전달되어 『바를람과 조사팻』이라는 작품으로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아랍고전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천일야화』 이야기가 안달루스로 전달되어 『센데바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재창작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부처설화의 사문유관

기원전 6세기경 고대 인도에서 출생하여 인류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인 부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세기경 산스크리트어 경전 『랄리타 비스타라(Lalita Vistara)』와 기원후 1세기경 아슈바고샤(Asvaghosa)의 서사시 『분다차리타(Buddhacarita)』에 부처설화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 부처설화는 동쪽으로 대승불교 경전의 형태로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남쪽으로는 소승불교 경전의 형태로 스리랑카를 거쳐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전파되었고, 북쪽으로는 티베트 불교로 전해졌다. 이에 더하여 부처설화는 서쪽으로도 전해지는데 이는 종교의 형태가 아닌 문학의 형태로 변형되어 전해진다. 서쪽의 문화권으로 전달될 때마다 부처설화는 각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수용하여 그 형태를 달리하게 되는데, 3세기경에는 고대 페르시아 지역으로 전해져 마니교 판본으로 변형되고 마니교적인 요소를 수용한다. 9세기경에는 아랍 문화권에 유입되어 이슬람적 요소를 가미한 아랍어 판본으로 전해진다. 10세기경에는 그루지야어 판본으로 변형되어 최초로 기독교적 요소를 수용하게 되었고 11세기경에는 그리스어로 번역 및 증보됨으로써 더욱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이후 그리스어 판본에서 한편으로는 여러 슬라브계 언어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48년 최초 라틴어 판본이 나온 후 여러 서유럽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졌고 여기에 유럽의 각 문화권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첨가함으로써 부처설화는 완전히 새로운 문학작품들로 탄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설화의 작품 전체를 비교 분석하는 틀에서 벗어나 부처설화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중의 하나인 ‘사문유관(四門遊觀)’이 각 문화권으로 전해져 탄생한 문학작품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불교문헌에 나타난 사문유관

불교전통에서 ‘사문유관’¹⁾ 또는 ‘사문출유(四門出遊)’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에피소드는 부처의 일생에 대한 기록들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설화적인 예로 『랄리타 비스타라』나 문학적인 예로 『분다차리타』의 기록들에 정형화 되어 전해지는 분다의 일대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이 바로 사문유관이다. 그 내용은 인도의 왕자로 축복과 기대 속에 태어나 왕궁의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을 겪지 못했던 왕자 신달타가 동서남북의 네 문을 통해 놀러 나갔다가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

1)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바는, ‘사문유관’이 부처설화의 내용구성에 있어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일반적 사실이지만 모든 종류의 부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방불교의 테라바다 전통에서 전해오는 삼장 중(tippitaka)에 『쑤따빠타까 suttapitaka』의 앙군따라니까야(anguttaranikaya) 라는 문헌에서는 부처가 실존의 문제를 사문유관과 같은 사건을 겪지 않고도 정확히 깨달아 이를 젊음과 건강과 삶에 대한 세 가지 도취(mada)로 해설하는 부분이 나온다.(강성용, 2005, 114-121) 또한 율장(律藏)의 한 계열인 ‘야짜(Yasa)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서, 아름다운 무희들이 흐트러져서 자는 모습을 보고 삶의 한계를 공감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데 이 에피소드는 사문유관이 가지는 의미적 기능을 대신해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ibid., 129-133)

들의 모습을 보고서 인간적인 존재의 비참한 실상을 알게 된다. 삶의 진실을 갈망하며 방황하던 중에 네 번째 문으로 나가 출가한 수행자 사문(沙門)을 보게 되었고 수행자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우치고 난 후 출가하여 헛된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참된 삶을 찾아 금욕과 고행과 순례의 길을 찾아 결국 해탈을 이루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문유관의 이야기는 분다설화가 서쪽으로 전파될 때에도 분다설화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정형화된 분다설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바로 분다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로 제시되는 극적인 사건이 바로 사문유관이기 때문이다(강성용, 2005:110-111).

『과거현재인과경』에 나오는 사문유관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왕족의 가문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호화스럽게 자라던 싯달타가 청년인 열여섯이 되었을 때 야소다라는 여인과 혼인한다. “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택일한 뒤 수레 만 대를 보내어 영접하여 궁중에 이르게 하고 태자의 혼인 예식을 완전히 갖추었다. 또 여러 기녀들을 불러 밤낮으로 재미있게 즐기게 하였다. 태자는 언제나 그 비와 함께 가고 서고 앉고 누워서 만사에 함께 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처음부터 세속에 뜻이 없었으므로 고요한 밤중에는 오직 선관(禪觀)만을 닦았다”(혜원 역, 2003:70).

이러한 왕자의 행동에 조바심을 느낀 왕은 싯달타를 세속의 왕자라는 지위에 묶어두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왕은 왕자가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 세속에 대한 염증을 느낄 것을 염려하여 싯달타가 이러한 세속의 나쁜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왕자의 궁 주위에 환락의 정원을 만들어 왕자가 즐기도록 하였다. 하지만 왕자는 점점 세속적인 쾌락과 환락을 멀리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자 왕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이러던 차에 왕자는 부왕에게 외유를 요청하게 되고 왕은 그의 청을 받아들여 외유를 허락한다. 싯달타는 동·남·서·북쪽 문을 통해 차례로 외유한다. 왕자가 머물던 카필라 성에는 모두 네 개의 문이 있었으며, 그 문 밖에는 각각 동산이 하나씩 있었는데, 나무와 꽃과 열매며 목욕하는 연못과 누각이며 갖가지로 장엄하기가 모두 한결같았다고 한다. 싯달타는 각각의 문을 통해 외유하며, 노인과 병자, 장례식을 보고 인생의 고통과 허무를 깨닫고, 비구승을 보고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된다. 이를 네(四)개의 문(門)을 나가 거닐다(遊) 보고(觀) 깨달은 것, 즉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 한다.

2. 아랍어 판본 『키타브 빌라우하르 와 부다사프』에 나타난 사문유관

부처설화는 서기 3세기 경 마니교가 널리 퍼졌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진다. 아랍어 판본은 이 지역에 전달되어 마니교 판본으로 옮겨졌던 부처설화가 아랍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키타브 빌라우하르 와 부다사프(Kitāb Bilauhar wa Būdhasaf)』라는 제

목의 책으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아랍어로 전달된 부처설화는 원래의 부처설화가 가지고 있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많은 아랍적 요소가 첨가된 변형된 내용이였다. 부처설화의 인도 판본과 아랍어 판본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처와 부다사프의 인물에 대한 성격의 특징에 있다.

인도 판본의 분다는 그 자체가 신성한 인물로서 태어나기 전부터 온갖 기적적인 현상들을 동반하며 보디산따(Bodhisatta, 菩薩)인 비뻏씨가 태어나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서서 낳고,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는 등의 기적을 보인다. 즉 이러한 발전된 단계의 서술에서 분다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이 본격적으로 지워지기 시작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그를 서서 낳음으로써 인간이 갖는 더러움 즉 피와 체액이 묻어서 태어나는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강성용, 2005:122-123).

부처 탄생에 대한 인도 판본의 이러한 서술은 분다 본인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다를 신격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아랍어 판본에서의 부다사프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근심어린 날이 지난 후 왕에게 마침내 한 아이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잘생기고 빛이 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새로 태어난 아이로 인해 왕의 기쁨은 최고조에 달했다. 왕은 그 아이에게 부다사프란 이름을 지어 주고 1년 동안 큰 잔치를 벌였다’(Daniel Gimaret(eds.), 1972:18).

즉, 아랍어 판본에서 부다사프의 탄생은 보통의 인간이 태어나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부처의 신격화를 허용하는 불교와 하나님 외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이슬람과의 종교적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부처의 탄생과 관련된 인도 판본과 아랍어 판본의 차이점은 압바시야 왕조의 아랍·무슬림 번역자들이 부처의 전기 설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과 부적합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윤색과 가감을 더한 증거라 하겠다.

연구 주제인 사문유관과 관련하여 인도 판본과 아랍어 판본은 판본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인도 판본에서 사문유관은 부처의 출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비교적 상세하고 장황하게 서술되는 것에 반해, 아랍어 판본인 『Kitāb Bilauhar wa Būdhasaf』에서는 비교적 짧고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다.

‘왕은 마침내 왕자의 외출을 허락했다. 그리고 왕은 나쁜 광경이 있는 길을 피해 가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왕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호위하고 거리를 아름답게 치장할 것을 명령했다. 가수가 그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그를 에워 쌓도록 했다. 또한 왕자의 시선이 아름다운 곳으로만 향하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그렇게 실행했다.

길을 떠난 왕자는 길거리에서 즐고 있는 두 남자를 보았다. 둘 중 한 사람은 온 몸이 부어 있고, 살점은 갈라지고 피부는 노란색이었다. 그의 모습은 보잘 것 없었다. 다른 한 사람은 맹인이었다. 왕자는 그 모습을 보고 몸서리치며 저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저 사람은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맹인입니다.”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기느냐?”

“예.”

“이 병에서 안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맹인의 눈이 빛에 반응하도록 할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왕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떠났다. 그는 그와 그의 아버지가 가진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길에서 노인을 만났다. 그의 머리는 흰색이고 피부는 검은 색이었으며, 피부는 주름졌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신체 기관은 허약해 보였다. 왕자는 놀라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저것은 늙음입니다.”

“몇 살쯤 되느냐?”

“100살쯤 보입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부다사프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인생이 짧고 그 다음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알게 되었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다사프는 하루는 12시간, 한 달은 30일, 일 년은 12개월이지만, 목숨이 100년에 이른다 해도 하루의 시간은, 한 달의 하루는, 1년의 한 달은, 우리 인생의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허무한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는 그 말을 반복하며 떠났다. 그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Daniel Gimaret(eds.), 1972:26-28).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랍어 판본의 사문유관에서는 병자와 맹인과 노인이 등장하여 인간 세상의 고뇌를 부다사프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 판본과 공통

점을 갖고 있지만, 인도 판본에 비해 그 분량과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다. 특히 불교 판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문유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만 부다사프가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만을 연출시키고 있다. 또한 인도 판본에서는 네 번째 외출에서 출가자를 만나 출가를 결심하게 되지만, 이슬람에서는 종교인이라는 특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부다사프가 굳이 출가할 상황이 설정되지 않는 점 또한 많이 다르며 이는 부처설화에 이슬람적인 요소를 가미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스승 빌라우하르와의 만남도 부다사프의 궁중 개인 교사의 소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도 판본과의 내용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우친 부다사프가 왕자로서의 세속적인 안락함과 부를 버리고 깨우침을 얻기 위한 고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점은 인도 판본과의 공통점이라 하겠다(윤용수, 2007:366).

3. 스페인어 판본 『바를람과 조사팍』에 나타난 서문유관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바를람과 조사팍』 이야기가 12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라틴어로 쓰인 판본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711년 이후 1492년에 이르기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남부를 지배해온 아랍인들에 의해 아랍어 판본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스페인어 판본은 라틴어 판본이 아닌 아랍어 판본에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거나, 최소한 아랍어 판본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몇몇 스페인어 판본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들 가운데는 라틴어 판본과 아랍어 판본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판본을 같이 보고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스페인어 판본의 텍스트는 직접적으로 라틴어 판본을 원본이나 기초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바를람과 조사팍』의 스페인어 중세 판본 중 1470년 페드로 오르티스(Petrus Ortiz)가 필사한 판본에 나타난 서문유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이후에 조사팍 왕자는 그의 아버지인 왕이 지정한 동반자들과 함께 말을 타고 자주 다니기 시작했으며, 이들[동행자들]은 그의 아버지인 왕이 명령한 대로 매우 잘 보필했다. 시종들이 앞장서가면서 못생기고 왜소한 모든 이들을 비켜가도록 했지만 모든 것을 못 보도록 다 가릴 수는 없다보니 하루는 왕자가 두 명의 남자 즉, 한 문둥병자와 한 노인을 보게 되었다.

왕자는 함께 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들의 몸골은 왜 그러하나?

그러자 그를 보좌하던 선생들이 그가 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저 사람들은 환자들인데, 상한 음식을 먹거나 나쁜 생각을 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이런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느냐?

그들이 말했다.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혈기가 지나치게 왕성해 건강을 잃은 환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부처설화의 사문유관 이야기가 스페인어 판본인 『바를람과 조사팻』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부처설화의 대표적인 한역본으로서 잘 알려진 『과거현재인과경』은, 주인공 싯다르타가 카빌라성의 외곽지역을 네 차례에 걸쳐 유람하며 노인과 병자, 주검, 비구를 각각 관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편, 스페인어 판본인 『바를람과 조사팻』에서는 조사팻이 자신의 궁전 밖을 여러 번 나가지만 마지막 두 차례의 외출에서 문둥병자와 노인을 구경하게 된다는 점 등의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 텍스트 내용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죽음’에 관한 사유가 시작되고 또 이 문제의식은 작품의 결론부에서 주인공이 오랜 수양생활을 성공리 마치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져 서사성의 전반을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이야기의 내면에는 문화권별 차이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백승욱, 2007:109).

Ⅲ. 천일야화와 센데바르

『천일야화』는 아랍의 설화집으로 우리에게서 주로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알려진 이야기 집이다. 원 제목은 『알프 라일라 와 라일라(Alf Lailah wa Lailah:천일야화(千一夜話))』, 즉 천 하룻밤의 이야기이다. 이 설화집은 원래 인도의 이야기가 주축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페르시아를 거치며 많은 이야기가 변형되고 첨가·삭제되어 『하자르 아프사네(Hazar Afsane)』라는 이름의 페르시아 설화집으로 탄생한다. 이 설화집은 페르시아가 아랍·이슬람 제국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랍으로 전달되었고 아랍은 여기에 다시 아랍의 이야기들과 함께 아랍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였다. 특히 10세기 이후에 바그다드와 이집트 등지의 전통 설화들이 더해지면서 대규모의 설화집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천일야화』 작품의 원형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일야화』가 서양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학작품으로 탄생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스페인 안달루스에서 탄생한 문학작품인 『센데바르(Sendebar)』가 있다.

『천일야화』의 스페인어로의 유입과정은 프랑스나 영국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중동문화에 관심 있는 인물들에 의해 『천일야화』가 번역되고 소개되었다면 스페인의 경우는 안달루스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711년에 안달루스가 아랍인에 의해 정복된 이후 1402년 아랍인이 완전히 안달루스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 까지 스페인 안달루스는 동부 아랍문화가 꾸준히 유입되던 창구였다. 따라서 안달루스의 『천일야화』의 유입과정은 아랍 문화의 아랍지역 상호간 유입과 전달이라는 연결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번역과정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개인 번역가들이 본인의 노력에 따라 『천일야화』 원본을 수집하였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번역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원본 내용을 수정, 변형, 첨가함으로써 원본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 안달루스에서는 『천일야화』 아랍어 원본이 거의 변형 없이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번역가들은 전달된 원본의 내용이 전부가 아닌 필요한 일부분만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안달루스로 전이된 『천일야화』는 『여인의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까스피야어로 번역되었는데 후에 『센데바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바뀌었다. 이 번역본은 『천일야화』의 '왕과 그의 왕자와 시첩과 일곱 대신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인 578번째 밤부터 606번째 밤까지의 내용의 일부분만을 번역하여 『센데바르sendebar』라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백승욱은 자신의 논문에서 『센데바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교훈담집의 전반적인 구조는 일종의 틀 이야기(frame story) 형태, 즉 알코스라는 어떤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을 둘러싼 하나의 표층 이야기와 여러 인물들 사이에 오고간 스물세 편의 심층 예화들로써 구성된다. 표층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알코스 왕은 시간이 흘러 정성스러운 기도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되지만 궁중의 철학자들은 그 왕자가 스무 살이 되는 해에 어떤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예언한다. 왕자가 꽤 성장하였을 즈음, 현자 신디바드(Çendubete)²⁾는 왕자의 운명을 다시 점치게 되고 향후 칠 일 동안 말을 하면 큰 액운이 덮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때 왕의 애첩들 중 한 명이 왕자에게 접근하여 나이든 왕을 죽이고 모든 것을 함께 차지하자고 유혹을 하게 된다. 이에 화가 난 왕자는 그 여자를 문책하려고 하지만, 그 여자는 도리어 왕자가 자기를 범하려 했다고 말하며 죄를 덮어씌운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알코스 왕은 왕자를 처형하도록 명하지만, 왕궁에 있는 일곱 현자들은 왕의 결정을 한사코 만류한다. 왕자를 사형시키기 위한 애첩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칠 일이 지나 왕자의 입을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된 후 사건은 인과응보의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한편,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스물세 편의 내부 단편들은 총 열 명의 인물들(즉, 일곱 현자들, 알코스 왕, 왕녀, 왕자) 간의 대화 사이에 서술된다.³⁾ 문헌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세부 교훈담들은 대부분이 여성비하적인 시각에 기

2) 헤수스 라까라(Lacarra 1995: 15)는 ‘Sendebar’(영어식 표기는 Sindibad)라는 단어가 현자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어휘인 ‘Siddha’와 현자들 중 대표자를 의미하는 ‘Siddhapati’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추한다.

3) 관련 설화를 서술하는 아홉 명의 인물들 중, 세 번째 현자(한 편만 서술)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명의 현자들은 모두 두

초하고 있으며 스페인 중세시대 당시의 상류계층에서 읽히던 일종의 지혜서로 판단된다. 텍스트 전체의 서사구조를 지탱하는 틀 이야기 구조의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작품은 『천일야화』 혹은 『칼릴라와 딘나』와 서술의 규모나 정교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센데바르』의 내용의 상당부분 즉, 표층이야기를 구성하는 첫 부분, 그리고 총 스물세 편 중 열다섯 편의 단편들은 『천일야화』의 한 부분, 구체적으로 “왕과 그의 왕자와 시첩과 일곱 대신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장(즉, 578번째 밤부터 606번째 밤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백승욱 2009, 216-217).

1. 각 판본 서문 비교

먼저 『천일야화』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중국의 한 뛰어난 왕이 자식 복이 없어 고심하다가 늦은 나이에 득남한다. 왕자가 일곱 살이 되자 왕은 신드바드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에게 왕자의 교육을 맡긴다. 신드바드는 왕자를 열심히 교육시켰고, 왕자는 열 살 때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가 된다. 신드바드는 왕에게 왕자의 근황에 대해 알렸고 왕은 기뻐하며 훌륭하게 성장한 왕자를 보기 위해 그를 궁으로 불러들인다. 그 무렵 신드바드는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왕자가 칠 일간 묵언을 해야만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는 비밀을 알아낸다. 왕자는 신드바드로부터 이러한 비밀을 전해들은 후 궁으로 갔고 왕이나 대신들의 물음에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걱정이 된 왕은 대신들의 충고에 따라 왕자를 후궁으로 보내어 심신을 편안하게 하도록 한다. 후궁에서 왕이 총애하는 시녀가 왕자의 수려한 외모에 매료되어 그를 유혹한다. 그러나 왕자는 애첩의 유혹을 뿌리치며 그녀의 발칙한 행동을 왕에게 알려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다. 왕자의 거절과 위협에 분노한 애첩은 왕을 찾아가서 왕자가 자기를 유혹하려 했다고 모함하며 왕자를 처형하라고 촉구한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일곱 명의 대신들을 불러서 왕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한다. 일곱 명의 대신들은 왕이 왕자를 처형하고 난 후에 크게 낙담하고 자신들을 문책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왕자의 처형 명령을 철회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첫 번째 대신이 왕에게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므로 애첩의 말만 듣고 왕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 일은 애첩이 거짓으로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인들의 간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내용이다.

『센데바르』의 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대아 지역에 알코스라고 불리는 아주 강대한 왕이 있었고 그에게는 구십 명의 비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 왕은 후사에 대해 걱정하다가 그가 가장 사랑하는 후궁으로부터 남자 아이를 얻게 된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왕국의 모든 현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점성

편의 교훈담을 서술하고 왕의 첩과 왕자는 각각 다섯 편의 단편을 서술한다.

술로 아들의 미래를 예견해 줄 것을 명령한다. 그들은 별자리를 살펴본 다음에 왕자는 아주 장수할 것이며,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무 살에 아버지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놀라나 결국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맡기기로 한다. 세월이 지나 왕자는 건장하고 늙름하게 자란다. 당시에 태어난 누구도 그와 같지 않았다. 아홉 살이 되었을 때, 왕은 센두베테(Çendubete)⁴⁾라고 불리는 현자에게 왕자를 교육하도록 한다. 그러나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그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 이에 크게 상심한 왕은 다시 한 번 왕국의 현자들을 불러들여 누가 왕자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백 명의 현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으나 센두베테가 마지막에 자신이 육 개월 내에 왕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왕에게 말한다. 그리고 센두베테는 자신의 거주지로 왕자를 데리고 가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왕자에게 모든 것을 교육시킨다. 그들은 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책상과 의자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왕자는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약속일을 이틀 남겨두고 왕이 센두베테에게 전령을 보내 사정을 물어보자 센두베테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테니 가서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왕자에게 돌아가서 왕자의 별자리를 본다. 그러나 별자리는 만일 왕자가 칠일 동안 말을 하게 되면 죽게 될 수도 있다고 나타난다. 크게 걱정하는 스승의 얼굴을 보고 왕자가 이유를 묻자 스승은 점성술 결과를 알려준다. 그러자 왕자는 칠일 동안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센두베테는 일단 날이 밝으면 왕에게 가되,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 동안 자신은 숨어있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왕자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센두베테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를 찾아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전에 같이 있던 현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자들은 아마도 센두베테가 왕자에게 지식을 얻게 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으로 인해 왕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이에 왕은 크게 상심한다.(김선욱, 2009:252-254)

왕은 왕자를 후궁으로 보내 심신을 편히 쉬게 하며 치료하도록 하였으나 왕의 애첩들 중 한 명이 왕자에게 접근하여 왕을 죽이고 모든 것을 함께 차지하자고 유혹한다. 애첩의 유혹에 화가 난 왕자는 애첩을 문책하려고 하지만, 애첩은 도리어 왕자가 자기를 범하려 했다고 말하며 죄를 덮어씌운다. 이 사실을 들은 알코스 왕은 너무 화가 나 왕자를 처형하도록 명하지만, 왕궁에 있는 일곱 현자들은 왕의 결정을 한사코 만류한다.

『천일야화』와 『센테바르』의 서문은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공간이 각각 중국과 후대아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천일야화』에는 왕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나 『센테바르』에는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

4). 센테바르를 가리킨다. 시리아어 판본에서는 신드반(Sindban), 그리스어 판본에서는 신티파스(Syntipas),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판본에서는 신디바드(Sindibad), 히브리어 판본에서는 센테바르(Sendebar)로 나온다.

와 있다. 그리고 『천일야화』에서는 일곱 명의 대신이 등장하나 『센데바르』에는 센두베테를 제외한 네 명의 현자가 이름 없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센데바르』에서는 센두베테와 다른 현자들간의 논쟁이 『천일야화』보다 조금 더 극적이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야기 서사는 거의 일치한다.

2. ‘과자장수와 그 아내와 앵무새 이야기’의 각 언어권 내용 비교

『천일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에 아름다운 미인을 부인으로 둔 과자장수가 집에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이 앵무새는 주인이 집을 나가고 없는 동안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집으로 돌아온 주인에게 밀고하곤 했다. 어느 날 과자장수가 친구들과 하룻밤을 지내려고 나가며 앵무새에게 집안을 잘 감시하라고 일렀다. 이때 부인은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애인을 불러들여 함께 밤을 보냈다. 과자 장수가 집에 돌아와 앵무새로부터 간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듣고는 너무 화가나 부인을 심하게 때렸다. 부인은 시녀가 간밤의 일을 남편에게 밀고했다고 생각하여 시녀를 매섭게 추궁하였고 시녀는 앵무새가 남편에게 밀고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부인은 기회를 보아 앵무새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 나가며 앵무새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밀고하라고 지시하고 나가자 부인은 애인과 시녀와 함께 남편의 앵무새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앵무새에게 맷돌과 바람과 물과 촛불을 사용하여 폭풍우 흉내를 내었고 남편이 돌아와 앵무새에게 간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묻자 앵무새는 홍수와 폭풍우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남편은 앵무새가 미쳤다고 생각하고는 앵무새를 죽여 버리고 만다. 친구들이 찾아와 남편이 앵무새를 죽이게 된 경위를 듣고는 부인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부인이 목욕간 사이 하녀를 죽쳐 진실을 알게 되었고 주인은 앵무새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다.

『센데바르』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설화는 『센데바르』의 총 스물세 개의 예화들 중 두 번째로 나열된 이야기로서, 알코스 왕이 왕녀의 말을 과신하고 왕자에 대한 사형을 명령하려하자 이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 신하가 왕에게 들려준 것이다.

왕이시여,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는 어떤 한 남자가 앵무새를 사서 우리에게 가두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다고 일전에 들었습니다. 그는 앵무새에게 아내에 관해 살펴본 모든 것을 말하라고 시켰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자신의

일을 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한번은 아내의 남자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한 모든 행위를 앵무새가 보고 말았습니다. 착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앉아 앵무새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앵무새에게 본 모든 것을 말하라고 했더니, 그의 아내가 남자 친구와 행한 모든 일을 주인에게 말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아내에 대해 매우 화가 나서 그녀의 방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하녀가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남편에게 내 행동을 모두 알려바친 것이 바로 너지?” 그러자 하녀는 자신이 아니라 앵무새가 고자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안주인은 앵무새에게 가서 땅바닥으로 그것을 내렸고, 비가 오는 것처럼 그의 머리 위에서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 손에 거울을 가져와 새장 위에 고정시켰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그 위에 세웠더니 앵무새는 그것을 번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녀가 멧돌을 갈기 시작했더니 앵무새는 그것을 천둥이라고 믿었지요. 안주인은 그런 행위를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남편이 와서 앵무새에게 물었지요. “어제 밤에는 뭘 봤지?”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큰 비와 천둥, 번개로 인해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게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니 내 아내에 대한 일도 사실무근이겠군. 네가 한 거짓말 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을 거야. 너를 처형시키고 말겠어.” 남편은 아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녀에 대한 화를 풀었고, 그들은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여성의 속임수가 그 방법에 있어 너무나 대담하고 끝없이 무궁무진하기에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백승욱, 2009: 218-220).

‘과자장수와 그 아내와 앵무새 이야기’의 판본들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이야기에 나오는 새의 종류는 『천일야화』와 『센데바르』가 모두 앵무새이다.
- (2) 남편의 부재 기간은 『천일야화』에서는 하룻밤으로 나타나나 『센데바르』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3) 아내와 부정을 하게 되는 상대방으로 『천일야화』에서는 애인으로 『센데바르』에서는 남편의 친구로 나타난다.
- (4)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남편의 반응은 『천일야화』에서는 부인을 심하게 때리고 『센데바르』에서는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 (5) 새를 속이는 방법에 있어서 『천일야화』와 『센데바르』는 거울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게 멧돌, 물, 촛불을 사용하고 새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일을 꾸미는 것이 같다.

- (6) 또한 이 계락을 꾸며 행하는 데에 있어 『천일야화』는 부인과 애인과 하녀가 모두 참여하고 『센데바르』에서는 부인이 혼자 일을 꾸민다.
- (7) 아내의 계락에 속은 남편이 새를 죽이고 난 이후의 과정에 대해 『천일야화』는 친구들의 충고로 결국 아내의 계락을 알아채고는 앵무새를 죽이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며 『센데바르』에서는 부인과 화해한 것으로 끝난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천일야화』와 『센데바르』의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각 판본들이 추구하는 특성에 따라 차이점 또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천일야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의 계락에 대해 비난하며 이에 대한 응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센데바르』에서는 여성의 계락에 속아 넘어가 여성과 화해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다. 또한 이야기 구조에 있어 『센데바르』 주로 부인 혼자서 일을 행하는데 비해 『천일야화』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 설정과 하녀를 계속 등장시키는 등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에 있어서 문학적으로 더 풍부한 면모를 보인다.

3. ‘남편을 속인 아내의 계교 이야기’의 각 언어권 내용 비교

『천일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름답고 애교 넘치는 정숙한 한 유부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도시로 여행을 떠나자 호색가인 건달이 유부녀에 반해 유혹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자 건달은 이웃의 노파에게로 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수중에 넣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노파는 건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건달은 노파에게 돈을 건넸다. 노파는 매일 유부녀를 찾아가 교류하며 매우 친해져 유부녀는 노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파는 유부녀의 집에 올 때마다 비계 빵에 후추를 뿌려 암캐에게 건네주곤 하였는데 암캐는 후추가 매워 눈물을 흘리면서도 노파 뒤를 따라오곤 했다. 유부녀가 암캐의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 노파에게 그 연유를 묻자, 노파는 암캐가 본래 자신의 아름다운 친구였는데 근처에 사는 젊은 나사렛인이 그녀에 반해 미칠 지경이었으나 그녀는 그를 상대도 해주지 않았고 젊은이는 상심한 나머지 병석에 누웠지만 계속 그녀에게 통사정하며 연서를 보냈으나 대답이 없었고, 결국 젊은이는 참다못해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여자에게 마술을 걸어 사람의 모습을 암캐의 모습으로 변하게 했다고 전했다. 암캐로 변한 친구는 노파 이외에는 아무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 집으로 와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말했다.

유부녀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노파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신도 암캐가 될까 두렵다고 하자, 노파는 누구든 남의 원한을 사면 안 된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며 그 젊은이를 유부녀에게 데려오겠다고 말한다. 유부녀의 집을 나온 노파는 곧장 젊은이에게로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 젊은이는 노파에게 일의 성사에 대한 보답으로 금화를 주며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유부녀에게로 돌아온 노파는 젊은이가 화를 내며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잘 이야기해서 젊은이가 집으로 오기로 했다고 유부녀에게 전해준다. 그러자 유부녀는 기뻐하며 그 젊은이가 약속을 지켜 집으로 온다면 노파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다.

다음 날 유부녀는 화정을 하고 젊은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노파는 젊은이를 만나러 갔으나 젊은이를 만나지 못하자 대신 길거리에서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 그에게 요리와 술과 미인이 있는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그를 데리고 유부녀의 집으로 갔다. 그 젊은 남자는 노파를 따라갔는데 그 집은 다른 아닌 자신의 집이었다. 유부녀가 그 젊은 남자를 보자 자신의 남편임을 알았고 일이 틀려졌음을 눈치 채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남편을 속일 간계를 짜기 시작했다.

유부녀는 곧 신을 벗어두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맹세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배반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남편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남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노파를 시켜 일을 벌였는데 노파의 감언에 속아 바람을 피우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바로 맹세를 깬 것이라며 남편의 머리를 신으로 때리며 이혼하자고 악을 썼다. 남편은 예기치 않은 일에 당황하며 부인에게 매달려 자신은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의심을 살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부인은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남편을 때렸다. 이 상황을 눈치 챈 노파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며 일을 원만하게 수습하자 남편은 노파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이야기이다.

『센데바르』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이시여, 부부금슬이 좋은 어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남편이 한 동안 집을 비웠지요. 그러던 중에 한번은 아내가 길거리로 나가게 되었으며, 그때 마침 한 남자가 그녀를 보고 구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요. 그러자 남자는 그녀의 이웃에 사는 한 노파에게 찾아가 그녀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부 말하며 원하는 것을 모두 줄 테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노파는 그에게 잘 알았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노파는 집으로 가서 꿀과 밀가루와 고춧가루를 하나로 반죽해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으로 가면서 암캐를 불러 아무도 몰래 그 빵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암캐는 그것을 먹었으면서 노파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더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빵 속의 고추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여자가 노파에

게 물었지요. “이 개처럼 우는 개를 본 적이 있으세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 개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으며 내 이웃이었지요.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구애를 해왔는데, 그것을 모른 척 했답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녀를 저주했으며 끝내는 암캐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지금 나를 보고나서 과거가 생각나 울기 시작하는군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아, 불운하구나! 하루는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내게 구애를 해와 내가 거절을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좋아?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면 개로 변하지 않을지 무섭군요. 지금 즉시 그에게 가서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해주겠어요? 노파가 말했다. “그를 마담께 데려오지요.” 그리고 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일어나 몸치장을 했으며, 그 찾고 있는 사람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파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때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군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그때서야 노파는 그 사람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구먼, 이제 그 여자는 내가 시키는 것은 뭐 던 다 할 걸세.” 때마침 그 여자의 남편이 오고 있었는데, 노파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잠자리와 젊고 예쁜 여자, 좋은 음식과 술을 제공한다면 뭘 좀 주시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앞서가는 노파의 뒤를 따라 가며,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을 비우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노파가 집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그 남자가 들어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그 후 그가 고개를 들으니, 아내는 자신의 남편임을 알아채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으며, 펄쩍 날 뻔 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나쁜 바람둥이. 이것이 우리가 맹세한 사랑 서약에 대한 결과인가요? 이제 보니 당신은 질 나쁜 여자들과 투쟁이들을 상대하는 사람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나와 함께 있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다고 내게 알려주었어요. 내가 노파에게 당신한테 가서 나쁜 여자들에게 유혹당하는 지 시험해보라고 했지요. 이제 보니 당신은 포주의 말을 잘 듣더군요. 이제 결코 당신과 함께 있지 않겠어요, 내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듯이 당신도 좀 이해해주구려. 그 노파가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당신과 나의 집으로 데리고 올 줄 누군들 알았겠소.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 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그런 짓을 하는 줄 알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듣자,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핥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부수며 말했지요. “이렇게 해야 당신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성난 그녀를 본 남편은 용서해달라며 매달리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대단한 것을 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마침내 그는 그가 가진 마을을 하나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예화를 말씀드린 뜻은 다름이 아니라 여자들의 속임수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백승욱, 2009: 222-225)

위의 이야기들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 이야기 도입 부분이 『센데바르』는 남편이 집을 비운 어느 날 아내가 길에 나갔다가 남자가 그녀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며, 『천일야화』는 이러한 내용도 없이 다만 건달이 유부녀에게 반했다고 짧게 언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 (2)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남자가 아내를 처음 보게 되는 설정도 길에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 『센데바르』와 건달을 만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천일야화』의 설정과는 다르다.
- (3) 노파가 아내에게 개가 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센데바르』에서는 개가 원래 노파의 이웃이었다고 설명되고, 『천일야화』에서는 노파의 친구로 설정되어 있어 각각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아내가 남편에게 서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화를 내는 부분과 남편이 아내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은 『센데바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마을을 선물로 주는 내용인데 비해 『천일야화』에서는 부인이 화를 내고 남편을 때리는 장면과 화해하는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나타나며 부인에게 선물을 주는 내용은 없고 노파가 중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5) 젊은이가 노파에게 유부녀를 피어낼 것을 부탁할 때 『센데바르』에서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나 『천일야화』에서는 돈을 노파에게 건네는 내용이 나온다.
- (5) 『센데바르』에서 노파의 존재는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간 이후부터는 아예 언급이 안 되는데 반해, 『천일야화』에서는 유부녀의 눈짓으로 노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센데바르』와 『천일야화』는 이야기의 내용과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IV. 결론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설화는 불교의 전승과 더불어 여러 지역으로 전이되었다. 전이의 과정 속에서 부처설화는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로 변화된다. 논자는 부처설화의 전이과정을 추적하며 부처설화가 받아들인 다양한 문화의 현상을 추적하고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부

처설화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탈피하고 하나의 에피소드인 ‘사문유관에’ 집중하여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처설화의 사문유관은 주인공 싯달타가 4개의 성문을 유람하며 만나게 되는 노인과 병자 주검과 비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부처가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싯달타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결국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이 아랍어 판본 『빌라우하르와 부다사프』라는 제목의 설화로 전이되었고 내용은 아랍적 요소가 가미되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아랍어 판본의 사문유관에서 병자와 맹인과 노인이 등장하여 인간 세상의 고뇌를 부다사프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 판본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인도 판본에 비해 그 분량과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다. 특히 불교 판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문유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만 부다사프가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만을 연출시키고 있다. 또한 인도 판본에서는 네 번째 외출에서 출가자를 만나 출가를 결심하게 되지만, 이슬람에서는 종교인이라는 특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부다사프가 굳이 출가할 상황이 설정되지 않는 점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어 판본 『바를람과 요사프』는 부처설화와는 다르게 네 개의 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단지 외유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고뇌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요사프는 이러한 번민과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스승이 필요했고 그 스승은 기독교 순례자인 바를람이었다. 요사프는 바를람을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게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부처설화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라틴어 판본 『바를람과 요사팻』은 기독교화 된 그루지아어 판본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가 다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다. 라틴어 판본에서는 그리스어 판본과 마찬가지로 요사팻이 현자 바를람을 만나 그로부터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고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라틴어 판본에서 부처설화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부처는 네 번에 걸쳐 동, 서, 남, 북문으로 나가 각각의 경우에 노인, 병자, 주검, 비구를 보았는데 요사팻은 두 번의 유람에 걸쳐 장님, 병자, 노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스페인어 판본인 『바를람과 조사팻』은 중세 그리스어 판본이나 라틴어 판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 언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되었음이 확실하다. 이는 기독교가 중세 유럽의 보편적 종교이며 기독교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행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논자는 부처설화가 서양의 여러 문화권으로 전이되면서 각각의 독특한 문학작품으로 발전되었고 이 작품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첨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문화권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적 사상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설화를 사용하였고 모든 작품이 사문유관이라는 에피소드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천일야화』가 서양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학작품으로 탄생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스페인 안달루스에서 탄생한 문학작품인 『센데바르(Sendebar)』가 있다.

711년에 안달루스가 아랍인에 의해 정복된 이후 1402년 아랍인이 안달루스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 까지 스페인 안달루스는 동부 아랍문화가 꾸준히 유입되던 창구였기 때문에 안달루스의 『천일야화』의 유입과정은 아랍 문화의 아랍지역 상호간 유입과 전달이라는 연결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또한 안달루스로 전이된 『천일야화』 아랍어 원본은 거의 변형 없이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번역가들은 전달된 원본의 내용이 전부 아님 일부만만을 번역하였다. 이 번역본은 『천일야화』의 '왕과 그의 왕자와 시첩과 일곱 대신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인 578번째 밤부터 606번째 밤까지의 내용으로 『센데바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성용(2005). “인도 불교 전통에서 분다설화의 발전-팔리(Pali) 문헌에 나타난 사문유관(四門遊觀)을 중심으로-”, 부산, 지중해 지역연구 제7권 1호.
- 김선욱(2007). “『발라바리아니』에 나타난 불교사상의 기독교화에 대한 연구” 서울, 중동연구 제25권 2호.
- _____(2009). “『천일야화』 판본의 동-서양 비교: 『센데바르 Sendebar』의 히브리어 판본, 스페인어 판본, 라틴어 판본을 중심으로”. 『중동문 제연구』. 제8권, 제 1호.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pp. 237-266.
- 리처드 F 버턴. 김병철 옮김.(2005). 『아라비안 나이트』. 서울: 범우사
- 백승욱(2007). “성인열전에서 대중문학으로 - 『바를람과 조사팻』의 스페인어 판본들에 나타난 ‘사문 유관 四門遊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서울, 스페인어문학 제42호.
- _____(2009). “스페인 중세 설화문학과 『천일야화』 - 『센데바르』를 중심으로”. 『중동문 제연구』. 제8권, 제 1호.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pp. 209-235.
- 송경숙 외.(1992). 『아랍문학사』. 서울: 송산출판사.
- 윤용수(2007). “동서고전문학의 교류- 아랍어 판본 Kitāb Bilawhar wa Būdhāsaf 를 중심으로-” 서울, 중동연구 제25권 2호.
- 이종화(2007). “부처설화의 서양으로의 전이과정 연구-각 언어권의 판본을 중심으로-”, 서울, 이슬람학회논총 제 17-1집.
- _____(2009). “『천일야화』의 서양으로의 정이과정 연구-각 언어권의 판본을 중심으로-”. 『지중해 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지중해연구원. pp.53-78
- 해원 역(2003). 『과거현재인과경』, 서울, 민족사.